

‘만점 활약’ 최형우·박찬호, 2년 연속 ‘황금장갑’ 도전

KBO, 2025 골든글러브 후보 83명 발표

네일·올리·양현종 투수 부문 후보…김호령, 생애 첫 도전장
‘투혼’ 최형우·‘셋별’ 성영탁, 정규시즌 MVP·신인상 후보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에 6명을 올렸다. 비록 가을야구 진출엔 실패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며 존재감을 증명했다.

KBO가 9일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보면, 투수 33명, 포수 7명, 1루수 6명, 2루수 5명, 3루수 6명, 유격수 8명, 외야수 16명, 지명타자 2명 등 총 83명이 선정됐다.

이 중 KIA는 투수 네일·올리·양현종,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김호령, 지명타자 최형우 등 6명이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 (10명)보다 줄었지만, 핵심 전력 다수가 후보에 오르며 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먼저 투수 부문에서는 3명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팀 전체 마운드는 불안했지만, 개인 성적만 놓고 보면 세 투수의 안정감과 꾸준함은 돋보였다.

에이스 네일은 평균자책점 2.25(리그 2위), 탈삼진 152개로 마운드를 이끌었고, 올리는 11승 7패, 탈삼진 169개(5위)로

팀 내 최다승을 기록했다. 베테랑 양현종도 30경기 153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수상자인 유격수 박찬호와 지명타자 최형우도 2년 연속 트로피에 도전한다.

박찬호는 134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7, 148안타, 27도루, 수비율 0.973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팀을 이끌었다. 도루 부문 8위, 안타 부문 10위 등 세부지표에서도 꾸준한 생산력을 보였다.

‘베테랑’ 최형우는 타율 0.307, 24홈런, 88타점, 출루율 0.399, 장타율 0.529로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출루율 5위, OPS 5위, 장타율 7위로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고, 통산 400홈런·2천500안타·1천700타점을 모두 넘긴 리그 최고의 타자다.

외야에서는 김호령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 후보군에 합류했다. 104경기에서 타율 0.283, 6홈런, 39타점, 수비율 0.974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팀의 중심을 지켰다. 특히 850이닝 넘게 중견수를 맡으며 안정감과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했다.

올해 후보 명단에는 팀별로 LG가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를 배출했고, kt와 SSG가 11명으로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린 최형우, 박찬호, 김호령

뒤를 이었다. 이어 삼성 9명, 한화·NC 각 8명, 롯데 7명, KIA·키움 각 6명, 두산 5명 순이다.

이 가운데 각 포지션별 최고 활약을 펼친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다.

골든글러브 선정은 정규시즌 종료 직후인 9월



부터 KBO 리그를 담당할 미디어 관계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12월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한편, KIA는 지난 5일 KBO와 한국야구기



〈KIA 타이거즈 제공〉

회가 발표한 ‘2025 KBO 정규시즌 MVP 및 신인상 후보 명단’에서도 2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MVP 부문에는 최형우가, 신인상 부문에는 신에 투수 성영탁이 포함됐다.

/주홍칠 기자

홍명보호, ‘삼바군단’ 상대 스리백 시험대

오늘 브라질과 월드컵 모의고사

한국 축구대표팀이 ‘삼바 군단’ 브라질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모의고사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미축구의 맹주인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벌인다.

남미팀을 상대로 한 이달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다. 대표팀은 이후 14일 오후 8시에는 북병 파라과이와도 대결한다.

브라질은 현재 FIFA 랭킹이 6위까지 떨어지는 등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 할만한 팀이다.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우승이 2002년 한일 대회까지 거슬러 올라간 한 통산 최다 우승국(5회)인 데다가 23회째인 내년 북중미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선 무대에 오르는 유일한 팀이기도 하다.

한국은 역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8차례 맞대결에서 1승 7패를 기록 중이다. 1998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 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브라질과의 대결은 2년 10개월 만이다.

마지막 대결인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는 우리나라가 1-4로 졌다.

홍 감독은 예상대로 손흥민(LA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포함된 정예대로 브라질과 맞선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밀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치르는 이번 브라질전은 홍명보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기회다.



손흥민과 연스 카스트로프가 지난 7일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축구 대표팀 오픈 트레이닝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강호들과 겨뤄야 할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스리백을 실험 중인 홍명보호에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브라질이 모의고사 상대로는 제격이다.

홍 감독은 북중미행 확정 이후 동아시아컵부터 스리백을 시험대에 올렸다. 지난달 미국 원정 2연전에서 4-2 스리백을 가동해 대표팀의 플랜A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이번에는 지난달 합류하지 못했던 조유민(샤르자), 2년여 만의 대표팀 발탁이자 홍명보 감독에게는 처음 부름을 받은 2004년생 김지수

(카이저슬라우테른) 등 중앙수비수 자원이 더해져 새로운 조합의 스리백 운용도 예상된다.

홍 감독은 이번 브라질전을 앞두고 “스리백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력을 키우고, 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단계”라면서 “더 강한 상대로 스리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원의 터줏대감인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에서 회복해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연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도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에 등극한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장사인중서와 황소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추석씨름 2년 연속 백두장사

최정만은 통산 23번째 금강장사

공해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씨름 괴물’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추석씨름대회에서 2년 연속 백두급(140kg 이하)을 제패했다.

김민재는 지난 8일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관 3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백원종을 3-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2년 연속 추석 장사를 휩쓴 김민재는 올 시즌 2관왕(설날대회, 추석대회)에 올랐다.

아울러 통산 16번째(백두장사 14회, 천하장사 2회)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백원종을 상대로 밀어치기로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서 두 판 연속 들배치기에 성

그는 앞서 8강에서는 김진(증평군청)을, 4강에서는 서남근(수원특례시청)을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은 금강장사(90kg 이하)에 올랐다.

최정만은 지난 6일 열린 금강장사 결정전에서 김기수(수원특례시청)를 3-2로 꺾고 우승했다. 올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23번째 금강장사다.

최정만은 김기수를 상대로 밀어치기로 앞서 나갔으나 두 번째 판에서 잡채기를 허용했다.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에서 김기수와 앞무릎치기와 뿌러치기를 주고받은 최정만은 마지막 판에서 밀어치기로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신진서, ‘나홀로 8강’…중국 7명과 란커배 격돌

한국 바둑의 간판스타 신진서(25) 9단이 란커배 2연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디펜딩 챔피언’인 신진서는 지난 8일 중국 취저우에서 열린 제3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16강에서 중국 란오위안허 9단에게 272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날 함께 16강전에 나선 원성진 9단은 중국 왕스이 8단에게 275수 만에 백 반집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신진서 9단 혼자 8강에 올

랐다.

8강 나머지 일곱 자리는 모두 중국 기사가 차지했다.

신진서는 8강에서 뤼자시 9단과 맞붙는다.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5전 전승으로 앞서 있다.

란커배 우승 상금은 180만원(약 3억4천200만원), 준우승 상금은 60만원(약 1억1천400만원)이다. /연합뉴스



시상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손현호(오른쪽). <대한역도연맹 제공>

광주시청 손현호, 세계역도선수권 ‘銅’

손현호(광주시청)가 한국 역도에 2025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손현호는 지난 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페르데에서 열린 2025 세계선수권 남자 79kg급 경기 용상 1차 시기에 198kg을 들어 3위에 올랐다.

케이든 케이호이(미국)와 모하메드 요네스(이집트)도 용상 198kg을 들었지만, 둘은 2차 시기에서 이 무게에 성공해 손현호가 동메달을 땀다.

합계 기록만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아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 부문을 모두 시상한다.

손현호는 이날 인상에서 1-3차 시기에 모두 실패해, 합계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용상에서는 동메달 한 개를 따냈다.

리즈키 주니안시아(인도네시아)는 인상 157kg, 용상 204kg, 합계 361kg을 들어 우승했다.

이번 페르데 대회는 국제역도연맹(IWF)이 제급을 개편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이다. /연합뉴스